

한국과 연변조선족 부모별거 아동의
탄력성과 양육요인 및 사회정서적 적응력간의 관계
The Relations among Children's Resilience, Child Rearing Factors
and Socio-Emotional Adjustment in Korean
and Yanbian Korean-Chinese Children Separated from Parents

고신대학교 아동복지학과
교 수 천 희 영*
광주대학교 사회복지학부
교 수 옥 경 희
경기대학교 유아교육학과
부 교 수 황 혜 정

Dept. of Child Welfare, Kosin Univ.

Professor : Chun, Hui-Young

Dept. of Social Welfare, Gwangju Univ.

Professor : Ok, Kyung -Hee

Dept. of Early Childhood Education, Kyonggi Univ.

Associate Professor : Hwang, Hye-Jung

<Abstract>

The focus of this study was finding out the relations among resilience of children separated from parents, child rearing factors and socio-emotional adjustment in Korean and Yanbian Korean-Chinese regions. Subjects were elementary school 5~6 graders separated from their parents(184 in Korea and 81 in Yanbian). Data analysis was by Pearson's r , F-test and t-test. Resilience of Korean-Chinese children was higher than that of Korean children. Caregivers' child rearing behavioral factor than other child rearing factors was significant for children's resilience, and especially for Korean children, caregivers' child rearing psychological factor -efficacy and stress variables- were meaningful. Socio-emotional adjustment was significantly different between resilience high and low groups in both regions. Implications are that regional differences, caregivers' psychological and behavioral child rearing factors should be considered in supporting the development of children's resilience and socio-emotional adjustment.

▲주요어(Key Words) : 부모별거(parents-child separation), 탄력성(resilience), 양육요인(child rearing factors), 사회정서적 적응력(socio-emotional adjustment), 연변조선족 아동(Yanbian Korean-Chinese children)

* 이 논문은 2004년도 한국학술진흥재단의 지원에 의하여
연구되었음(KRF-2004-042-C00143)

** 주 저 자 : 천 희 영(E-mail : chunhy@kosin.ac.kr)

I. 서 론

현대사회 가족의 변화는 가족구조의 변화를 필연적으로 내포한다. 2006년도 이혼통계(통계청, 2007)에 의하면 최근 3년간 전체 이혼건수는 감소 추세를 보였으나 하루 평균 342쌍의 부부가 이혼을 했고, 이혼 평균연령은 남자가 42.6세, 여자가 39.3세로 적어도 양육할 자녀가 있는 시기의 이혼건수가 많았다. 이는 연변조선족 사회가 '코리아 드라마'로 한국으로 출국한 조선족 이주노동 여성의 결손가정에 남겨진 자녀 문제로 열병을 앓고 있다는 최근의 보도(조선일보, 2007)와 함께 한국과 연변조선족 사회에서의 부모별거 가족과 부모별거 아동의 증가를 단적으로 보여 주었다. 부모별거 가족의 증가는 긍정적인 발달과 적응 및 부모-자녀 관계 측면에서 발달심리학적·사회적 우려를 증가시키고 있다(조복희·이주연, 2005). 부모 중 적어도 한 사람 이상이 부재한 결손 가정 환경은 아동의 인지 및 사회정서적 발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중국과 한국에서 수행된 연구들(예; 김승경, 2004; 리철민·리홍길, 2004; 조복희·이주연, 2005)에서 확인된 바 있어, 한국과 연변조선족 사회에서의 부모별거 아동 증가 원인은 다르다고 해도 불리한 발달과 적응 조건에 처해있다는 데 대체로 동의하고 있다. 따라서 이제는 부모별거 아동의 긍정적인 발달과 성장을 돕기 위한 방안의 모색이 요구되며, 이를 위해서는 부모별거 환경에서 생활하는 아동의 적응 기제에 어떤 요인이 어떻게 작용하는지에 관한 경험적 자료와 정보가 요구되고 있다.

부모별거 아동, 즉 부모 이혼, 사망, 질병, 아동학대, 취업 등의 어떠한 이유로 한 부모 또는 양 부모와 분리되어 양육되어야 하는 아동은 부모와 상호간에 정서적·물질적 지지를 제공하며, 책임감·친밀감과 계속적인 돌봄의 근간을 상호 전달하는 집합체라는 가족의 의미(한미현 등, 2007)가 더 이상 지켜질 수 없는 위기의, 스트레스로 가득 찬 상황에 처하게 된다. 아동이 역경이나 어려움을 경험하면서 자신의 능력이나 이전의 기능을 상실하였으나 이전의 적응 수준으로 회복할 수 있는 긍정적인 힘인 탄력성(resilience)(Block & Block, 1980; Block & Kermen, 1996; Garmezy, 1993)은 아동의 부적응적인 발달과 관련되는 위험요인들에 대한 연구의 부산물로 주목받기 시작했다(김승경, 2004). 탄력성의 정의는 정신분석학적 관점에서 개인의 한 성격 유형으로, 발달정신병리학적 관점에서 시간에 걸쳐 역동적인 과정으로 크게 나뉜다(김선희, 2005; 이용준·박경자, 2005; Kirby & Fraser, 2000). 그러나 두 관점은 공통적으로 탄력성을 스트레스 상황에서 이전의 적응 수준을 회복할 수 있는 능력으로 보고 있어(김승경, 2004), 탄력성은 아동의 위기를 경험 여부와 관계없이 그들의 적응 수준을 결정하는데 중요하다.

스트레스 상황에서 아동이 심리적·행동적 문제를 일으킬 가능성을 증가시키는 위험요인과, 반대로 아동이 위험에 저항하거나 개선하도록 돕는 보호요인들은 세 가지로 범주화될 수 있다(Emery & Forehand, 1996; Garmezy, 1985; Kirby & Fraser, 2000). 첫째, 개인적 요인 범주에는 유전 요인, 기질적 요인, 성, 인지능력, 특정 장애 등이 포함된다. 둘째, 가족요인 범주에는 부모와의 관계, 가족응집성, 양육행동, 가난과 같은 상황적 요인이, 그리고 셋째, 가족외적인 사회적 요인 범주에는 가족이외의 지지적인 사회관계망 등이 포함된다. 본 연구는 부모별거 가족이라는 가족환경에서의 아동의 탄력성 발달에 초점을 두고 있으므로 부모별거 가족 요인 중 별거경험 요인과 대표양육자 요인을 포함하는 양육요인 중심으로 탄력성의 발달을 살펴보기로 한다¹⁾

아동이 부모와의 별거를 경험하는 시기에 초등학교의 저학년 아동은 부모의 이혼에 대한 대처기술의 부족으로(오은순, 1997), 자신의 신체적·정서적 변화 시기에 있는 고학년 아동이나 청소년은 이혼 상황에서의 대처기술을 보유하고 가정 밖의 심리적 체제 이용이 가능하다 할지라도 이혼 상황에서의 부모 지원이 부족할 경우(Altshuler & Ruble, 1989) 적응에 어려움을 겪는다고 보고된 바 있다. 그러나 아동의 발달수준에 따라 이혼에 의한 별거로 아동이 겪게 되는 적응의 어려움에 관한 결과가 일관되게 보고되지는 않았다(김승경, 2004; 천희영 등, 2006). 부모 이혼 시의 연령이 높을수록 그리고 학령전기의 아동에 비해 학령기 아동이 적응을 잘하지 못하다는 결과(정현숙, 1993; Amato & Keith, 1991)는 학년이 높아질수록 이혼가정 아동의 탄력성은 부정적인 영향을 받게 된다(김승경, 2004)는 결과와 상통한 것이었다. 그러나 연령이 높을수록 적응을 잘한다는 오은순(1997)의 연구결과, 연변지역 부모별거 가정의 소학교 저학년 아동보다 고학년 아동의 적응수준이 높다는 천희영 등(2006)의 연구결과와는 일관된 것이 아니었다.

이혼에 의한 부모와의 별거 경과시간은 아동의 탄력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밝혀져 있으며 별거기간이 길수록 아동이 적응을 잘 한다는 결과가 지배적이다. 이혼 직후에 사회적·정서적·인지적·행동적으로 다양한 문제를 보이지만 2년이 경과될 무렵 아동은 편부모 가정에 익숙해지며, 6년 정도가 지나면 안정적인 상태를 보인다는 것이다(Hetherington, 1989; 정현숙, 1993). 같은 배경에서, 평균

1) 부모와의 별거시기, 별거기간, 별거원인 등의 하위변인을 포함하는 별거경험 요인(천희영 등, 2006)과 아동의 탄력성 발달간의 관계는 이혼가정의 아동을 대상으로 한 연구들(김승경, 2004; Emery & Forehand, 1996)에서 직접 다루어진 바 있으나 소수에 불과하였다. 이에 탄력성의 개념을 스트레스 하에서도 유지되는 유능감으로 보는 Masten 등(1990)의 입장을 수용하여 아동의 적응과 별거경험과의 관계를 다룬 연구결과들을 함께 참고하였다.

별거기간이 약 4년 정도인 한국과 연변지역 부모별거 아동의 적응은 별거기간에 유의한 영향을 받지 않았으나(천희영 등, 2006), 어머니와 별거한 기간이 24개월 이내인 아동이 그 이후인 아동들 보다 유의하게 높은 문제행동 수준을 보였다(조복희·이주연, 2005)는 연구결과는 이해될 수 있었다.

부모와의 별거원인을 고려하지 않고 가족구조적 관점에서 결손가정 아동의 발달과 적응을 다루는 것은 별거 관련 경험을 충분히 다루지 못하는 것이다(오승환, 2001). 양친부재의 원인이 이혼 또는 별거인 경우 정서·행동문제가 많이 나타나며(이은경·박성연, 2004), 이혼보다는 사별에 의해 별거를 경험하는 편부모는 정신적·물질적 도움을 더 많이 받으므로 그들의 자녀는 보다 안정된 양육을 받을 수 있다고 보고되었다(오은순, 1997). 또 한국의 초등학교 저학년과 고학년인 부모별거 아동의 경우 별거원인이 부와(또는) 모의 사망이 아닌 부모 이혼 또는 불화인 경우 문제행동 수준이 높고 정서지능의 발달수준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천희영 등, 2006). 이에 별거의 원인은 아동의 탄력성 발달과 관계가 있을 것으로 기대되었다.

부모별거 아동의 양육요인 중 아동과 동거하며 양육을 주로 담당하는 대표양육자의 요인은 그들의 개인적 특성, 그리고 양육자로서 아동과의 관계에서 보이는 행동적, 심리적 특성을 포함한다. 대표양육자의 개인적 특성으로는 먼저 아동과의 관계가 어떠한지를 고려할 수 있다. 한국의 부모별거 초등학교생은 편부모, 가족의 성원에 의한 양육의 비율이 높지만 연변지역의 경우는 조부모 또는 나이든 형제, 친척이 주양육자로 역할하는 비율이 높다고 보고되었으며(김승경, 2004; 조복희·이주연, 2005; 천희영 등, 2006), 손자녀를 양육하는 조부모의 경우 한국은 연변조선족 지역보다 조모의 비율이 높고 교육수준이 낮으며 친손자를 더 많이 돌보는 것으로 밝혀진 바 있다(옥경희 등, 2006). 김승경(2004)은 이혼가정에서 동거하는 부모의 성별은 아동의 탄력성과 관계가 없다고 했으나 아동의 전반적인 적응은 대표양육자가 누구인지에 따라 차이가 있다는 연구가 다수이다. 편부의 자녀는 편모의 자녀보다 정신건강이나 사회성 발달에서 불리하며(Demo & Cox, 2000), 옥경희(2005), Dubowitz와 Sawyer(1994)는 조부모나 친족에 의해 양육되는 아동은 양부모의 양육을 받는 아동보다 학교생활과 학업, 사회적응력 발달이 부정적이지만 타인에 의한 대리양육을 받는 아동보다는 더 긍정적이라고 했다. 시설에서 양육되는 아동은 사회적 적응수준이 낮다고 보고되었다(현은민·박혜영, 2005).

대표양육자의 연령, 교육수준, 수입정도과 같은 개인적 특성은 부모역할수행의 결정에 관련되며(이은경·박성연, 2004)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있다. 조부모와 같이 나이가 많은 양육자는 양육자로서의 역할수행이 더 힘들어 양육스트레스를 높게 지각하며(옥경희 등, 2006) 아동은 부모와

는 다른 양육실체에 접하여 적응문제를 겪을 수 있다(천희영 등, 2006). Masten 등(1999)에 의하면, 양육자의 사회경제적 수준은 아동발달을 보호하는 보호요인으로서 적응과 관련된다(이용준·박경자, 2005). 이혼가정 아동의 탄력성이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범주화했던 Emery와 Forehand(1996)는 양육자의 낮은 경제력을 탄력성 발달의 위협요인으로 분류하였으며, 김승경(2004)도 사회경제적 지위가 높을수록 이혼가정 아동의 탄력성은 긍정적인 영향을 받는다고 했다. 특히 경제적 결핍 관점에서는 한부모 가족 또는 양친부재 가족 아동의 적응과 발달문제는 주양육자의 낮은 사회경제적 지위 때문이라고 본다(이은경·박성연, 2004; Klein & Beller, 1988). 그러나 이용준과 박경자(2005)는 역경 생활사건을 경험한 탄력적인 집단 아동과 비교집단 아동간에 사회경제적 지위 점수의 차이가 없다는 결과를 보고한 바 있다. 또 천희영 등(2006)의 연구에서는 연변조선족 사회와 달리 한국의 부모별거 초등학교생의 사회정서적 적응은 주양육자의 평균 수입 정도에 영향을 받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이혼 뿐만 아니라 다양한 이유로 부모와 별거한 아동을 대상으로, 한국과 연변조선족 지역의 아동 모두를 대상으로 그들의 탄력성이 주양육자의 교육수준이나 수입정도와 어떠한 관계를 보일 것 인지의 확인이 요구되었다.

본 연구에서 대표양육자 요인에 속하는 양육자의 행동적 특성은 양육행동을 의미하였다. 바람직한 양육행동은 아동의 사회적 적응을 돕고 아동의 행동을 최적으로 발달시키는 요인으로, 일반적으로 온정적이고 일관적이며 적절한 통제를 포함한다(예; 이선경·이재연, 1998). Egeland 등(1993)과 Belsky(1984)는 아동의 탄력성이 미치는 양육체계의 영향을 경험적으로 확인하고, 유아기와 아동기동안 연령에 적합한 부모의 양육행동이 아동의 적응 여부를 결정한다고 보았다(김선희, 2005에서 재인용). 부모의 양육행동은 아동이 보다 높은 탄력성을 가지기 위해 필요한 대체기술을 사용하고 발달시키도록 하며, 역으로 문제에 따른 위협에 처할 가능성을 높이기도 한다(Blount et al., 1989; 김승경, 2004에서 재인용). Horning과 Gordon Rouse(2002)는 저소득층 유아의 탄력성 성장에 있어 민주적인 양육행동이 중요 역할을 한다고 보고했으며, 김선희(2005)는 어머니가 적극적인 참여와 자율성을 격려할수록, 방임적 허용을 적게 할수록 유아의 탄력성 수준이 높아진다고 했다. 학령기 아동의 탄력성 발달에 부모의 아동에 대한 지지가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며(김승경, 2004), Masten 등(1999)도 탄력성이 높은 아동의 어머니가 안정적이고 일관된 양육행동을 높게 보인다고 했다. 그러나 이용준과 박경자(2005)는 양육행동이 탄력성 발달에서 위협요인에 대한 보호요인으로 기능하는지를 확인할 수 없었다. 한국과 연변조선족 사회의 부모별거 아동의 적응을 연구했던 천희영 등(2006)은 한국 아동의 정서지능 수준에 온

정·수용적 양육행동이, 연변 아동의 문제행동 수준에 거부·제재적 양육행동이 유의하게 영향 미친다고 했다. 그러나 그들의 탄력성의 수준이 양육행동과 어떠한 관련이 있는지는 확인된 바 없었다.

본 연구에서 양육자의 심리적 특성으로 다루고자 하는 양육효능감과 양육스트레스 변인은 양육행동에 선행하는 특성이다. 부모역할 자신감의 인지적 측면인 양육효능감과 부모역할수행 관련 과업에 대한 부정적인 심리적 반응인 양육스트레스가 아동의 발달에 긍정적 및 부정적으로 영향 미친다는 것은 알려져 있다. 심리적 양육환경으로서 양육자가 지각하는 양육스트레스는 양육 상황에서 적응 실패를 결과하며(조가원, 2002), 양육효능감에 부적 상관을 보이거나 부정적 영향을 담당한다고 보고된다(예; 김미숙·문혁준, 2005). 또 자신의 양육효능감을 높게 지각하는 부모는 더 개입적이고 민주적인 양육행동 특성을 보인다(이혜승, 2003). 탄력성과 관련하여, 양육의 효율성에 대한 강한 지각이 위협의 영향으로부터 아동을 보호하며(김승경, 2004), 유아의 탄력성에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가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며, 양육효능감은 양육행동을 매개변인으로 하여 유아의 탄력성에 영향 미친다고 보고된 바 있다(김선희, 2005). 학령기 부모별거 아동의 경우 양육효능감과 양육스트레스 모두 연변조선족 사회와 한국에서 사회정서적 적응력 발달에 중요하다고 보고(천희영 등, 2006)된 상태에서, 양육행동과 밀접히 연관되는 양육효능감, 양육스트레스(Abidin, 1992)와 학령기 부모별거 아동의 탄력성과의 관계 파악은 그들의 발달 적응 이해에 중요한 정보를 제공할 것으로 생각되었다.

이상에서 아동의 탄력성 또는 적응 발달과 관련하여 살펴본 위험요인과 보호요인들은 부모별거 아동의 생태환경 중 미시체계에 속하는 요인들이었다. 가족이라는 사회체계 내에서 이루어지는 탄력성과 이러한 미시체계 변인들간의 관계는 사회체계 자체가 그 사회와 문화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서로 다른 문화적 배경을 갖는 부모별거 가족과 그에 속한 아동에게서 서로 다른 양상으로 나타날 것으로 예측할 수 있다. 연변조선족 사회는 우리나라와 동일한 유교문화의 전통을 가진 동일 민족이면서도 중국 문화와의 접변을 통해 생활양식과 의식 측면에서 차이가 있다(천희영 등, 2006). 또한 중국의 경제개방과 함께 나타난 조선족 사회의 가족생활은 도시로의 이주, 핵가족화로 변화를 겪고 있으며 결혼 가정이 증가하고 있다(조복희·이주연, 2005, 2006). 그러나 탈현대적 가족구조의 대표적인 예라고 볼 수 있는 부모별거 가족(윤갑정, 2007)의 증가 원인은 한국과 뚜렷한 차이가 있어, 부모의 맞벌이나 경제적인 이유로 인한 부모별거가 높지만 한국은 부모의 이혼이나 불화가 그 주요 원인으로 알려져 있다(천희영 등, 2006). '가족 속의 아동'의 발달과 적응이 이와 같은 사회의 변화에 따른 가족의 변화와 결코

분리될 수 없다는 점에서 한국과 연변조선족 사회에서의 부모별거 아동의 탄력성 발달 수준에 차이가 있을 것으로 기대되었다.

한편, 사회정서적 적응력은 아동이 타인과의 관계에서 사회적·정서적으로 만족스럽게 상호작용하고 이를 통해 자신의 능력을 향상시키는 능력(Katz & McClellan, 1977)으로, 본 연구에서는 정서지능, 문제행동, 학교적응의 세 측면에서 고려되었다. 정서지능은 아동이 자신의 감정 상태를 인식하고 조절하며, 타인의 사고·감정·의도를 이해하고 공감함으로써 사회적 상호작용에 있어 적절하게 대처하는 능력을 의미한다(김경희, 1998). 정서지능의 높은 수준은 아동 개인의 심리적 기능이나 자제력을 강화시키고, 반대로 부족할 경우 학업부진이나 사회적응상의 행동문제 등을 보이게 하므로(김경희, 1998; 우수경·최기영, 2002) 사회정서적 적응력의 긍정적인 측면을 반영한다. 아동의 행동문제는 발달적·사회적 규범을 벗어나는 행동적·정서적 부적응의 결과를 의미하며 아동기뿐 아니라 청년기·성인기까지 부적응이나 반사회적 행동, 범죄행위로 발전될 수 있는 행동 특성(이완정, 2002; 하영희, 2003)이므로, 사회정서적 적응력의 부정적 측면으로서 관심의 대상이 된다. 아울러 학교는 가족의 구성원으로 확장된 대인관계를 요구하며, 발달의 최고 형성기동안 또래와의 우정을 기르고, 지역사회 구성원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해보는 곳으로서(Good & Weinstein, 1986, 박혜원·이사라, 2005에서 재인용), 학령기 아동 발달에서 중요한 미시체계이다. 학령기 아동의 심리적 건강성과 관련된 중요 내적변인이 또래수용도, 사회적 능력, 학업 능력 등으로 측정되고 있음(이완정, 2002)은 이를 뒷받침한다. 따라서 학교적응은 학령기 아동의 사회정서적 적응력 발달에서 반드시 고려되어야 할 부분이다.

스트레스 상황에서 성공적으로 대처하는 아동은 건강한 심리상태를 유지하지만 대처에 실패하게 되면 사회심리적으로 부적응을 보이게 된다(신재선·정문자, 2002). 현은민과 박혜영(2005)은 탄력성이 높은 아동은 감정적으로 어려운 경험들을 잘 헤쳐 나가며, 계속 타인의 긍정적인 관심을 얻어내는 능력이 있다고 했다. 또 이완정(2002)은 위협요소에 노출되었으나 행동문제를 높게 보인 유아보다 낮게 보인 유아의 탄력성은 유의하게 높다는 결과를 보고했다. 탄력성이 스트레스와 같은 상황적인 문제에 융통성 있게 반응하는 경향으로, 또 스트레스와 적응간의 관계를 중재하는 개인적 특성으로 주목받게 되면서 행해진 탄력적인 아동·청소년이 학교에서 사회정서적 적응을 어떻게 보이는지에 관한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았다. Robins 등(1996)은 탄력적인 아동이 병리적 문제나 비행행동을 할 확률이 낮고 지적이며 학교에서 적절한 행동을 하는 것으로, Luthar(1991)는 대인적·과제수행적 상황에서 책임감이 있고 사회적으로 성숙

하다고 했으며, Havinghurst(1972)는 높은 학업성취 동기, 또래관계 및 학교활동에서 긍정적인 행동을 유지한다고 보고했다(현은민·박혜영, 2005에서 재인용). 이와 일관되게 시설보호 아동·청소년의 탄력성에 따른 사회적 적응 능력의 차이를 분석했던 현은민과 박혜영(2005)은 탄력성이 높은 집단이 낮은 집단에 비해 사회적 적응 점수가 더 높다는 것을 확인한 바 있었다. 그러나 이상의 선행연구들은 탄력성의 의미를 학교적응유연성으로 제한하여 보았거나, 시설보호 청소년이나 실직가정, 또는 빈곤 가정의 아동을 연구대상으로 포함한 것이었다. 따라서 학령기 부모별거 아동의 경우 탄력성이 사회정서적 적응력의 긍정적 및 부정적 측면을 포함하는 정서지능, 문제해동, 학교적응과 어떠한 관계를 갖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요구되었다.

이상과 같은 배경에서 본 연구는 한국과 연변조선족 사회 부모별거 아동의 탄력성 발달 수준을 비교하고, 그들의 탄력성이 양육요인 및 사회정서적 적응력과 어떠한 관계를 보이는지를 살펴보는데 연구의 목적을 두었다. 연구목적에 따른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았다.

- <연구문제 1> 한국과 연변 지역 부모별거 아동의 탄력성은 차이가 있는가?
- <연구문제 2> 부모별거 아동의 탄력성과 양육요인간의 관계는 어떠한가?
- <연구문제 3> 부모별거 아동의 탄력성과 사회정서적 적응력간의 관계는 어떠한가?

II.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의 대상은 초등학교 5~6학년에 재학하는 265명의 부모별거 아동과 그들의 대표양육자들이었다. 연구대상 아동 중 한국 아동은 서울, 부산, 광주 각 지역에서 무선적으로 표집된 10개 초등학교에, 연변 지역의 조선족 아동은 연길시 소재 2개 소학교에 재학하는 아동들 중에서 본 연구의 부모별거 아동 정의 즉, 부모의 이혼, 사망, 질병, 아동학대, 취업 등 어떠한 이유로 한 부모 또는 양 부모와 분리되어

사는 아동이라는 정의에 부합하는 아동들이었다. 연구대상 아동들의 지역별·학년별·성별 분포는 <표 1>에, 아동의 양육요인 중 별거경험 요인과 대표양육자의 개인적 특성에 해당하는 변인별 빈도분포는 <표 2>에 제시된 바와 같았다.

2. 연구도구

1) 탄력성 측정도구

아동의 탄력성 측정을 위해, 초등학교 10~12세 아동의 자아탄력성을 측정하는 자아탄력성 척도(윤현희 등, 2001)를 사용하였다. 부모보고형의 척도로 개발된 것이지만 아동을 응답자로 하여 조사 가능하도록 문항의 내용을 수정하고 본 연구자들의 내용타당도 검토를 거쳐 5개 요인들로부터 17개 문항을 선정하였다. 본 연구의 아동 응답을 기초로 요인분석한 결과 자신감 있는 낙천성, 공감과 자기수용, 과제에 대한 집중력과 자신감, 이해력, 리더쉽 등의 5개 구성 요인들을 재확인할 수 있었고 총 설명변량은 55.59%였다. 4점 척도의 응답양식에 따라 총점의 범위는 17점~68점이었다.

2) 양육요인 측정도구

(1) 별거경험 요인의 측정

현재 부모별거 가정에 속한 아동의 별거경험 요인, 즉 부모별거가 시작된 시기의 아동 연령, 및 별거기간, 별거원인 등 하위변인들을 조사하기 위한 2개 문항이 양육실태조사 질문지에 포함되었다. 질문에 대한 응답자는 아동의 대표양육자였다.

(2) 대표양육자 요인의 측정

대표양육자 요인은 개인적 특성, 양육실태에서의 행동변인을 포함하는 양육행동적 특성, 양육의 심리적 환경에 해당하는 양육효능감과 양육스트레스 변인을 포함하는 양육심리적 특성으로 나뉜다. 3가지의 특성별로 측정에 사용된 도구는 다음과 같다.

① 개인적 특성

아동의 대표양육자를 응답자로 하는 양육실태조사 질문에 부모별거 아동의 양육을 주로 담당하는 양육자의 아

<표 1> 지역별·학년별·성별 연구대상의 분포

지역	학 년		무응답	성		계
	5학년	6학년		남	여	
한국	100	84	0	95	86	184
연변	41	40	0	34	47	81
전체	141	124	0	129	133	265

<표 2> 연구대상 아동의 지역별 별거경험 및 대표양육자 개인 특성 해당 변인의 빈도(%)^a

양육요인의 하위요인	해당 변인	범 주	지 역	
			한국(n=184)	연변(n=81)
별거 경험 요인	별거 시기	0~2세	10(7.2)	8(9.9)
		3~5세	29(20.9)	11(13.6)
		6~11세	94(67.6)	50(61.7)
	별거 기간	12세 이상	6(4.3)	12(14.8)
		1년 이하	0(0.0)	0(0.0)
		2~3년	2(1.4)	0(0.0)
		4~5년	1(0.7)	0(0.0)
		6~7년	135(97.8)	79(100.0)
		8년 이상	0(0.0)	0(0.0)
	별거 원인	한쪽부모 또는 양쪽부모 사망	35(22.7)	4(4.9)
		부모 이혼 또는 불화	85(55.1)	18(22.2)
		경제적 이유 또는 맞벌이	23(14.9)	39(48.2)
		기 타	11(7.1)	20(24.7)
대표양육자의 개인적 특성 요인	아동과의 관계	편부모	133(76.4)	43(53.1)
		조부모·나이든형제	32(18.4)	26(32.1)
		친 척	6(3.4)	11(13.6)
		이웃·부모친구·복지시설·기타	3(1.7)	1(1.2)
	연 령	20대 이하	1(0.6)	1(1.2)
		30대	51(32.5)	26(32.1)
		40대	73(46.5)	27(33.3)
		50대	10(6.4)	5(6.2)
		60대	16(10.2)	17(21.0)
		70대 이상	6(3.8)	5(6.2)
	교육수준	무 학	6(3.7)	1(1.2)
		초등졸	21(13.0)	7(8.6)
		중 졸	22(13.6)	20(24.7)
고 졸		86(53.1)	43(53.1)	
전문대졸		11(6.8)	7(8.6)	
4년제 대졸		12(7.4)	3(3.7)	
대학원졸		4(2.5)	0(0.0)	
100만원 미만(1000위안 미만)		83(51.9)	39(49.4)	
100만원 이상~200만원 미만(1000위안 이상~2000위안 미만)		50(31.3)	26(32.9)	
200만원 이상~300만원 미만(2000위안 이상~3000위안 미만)		17(10.6)	9(11.4)	
수입정도 ^b	300만원 이상~400만원 미만(3000위안 이상~4000위안 미만)	9(5.6)	2(2.5)	
	400만원 이상(4000위안 이상)	1(0.6)	3(3.8)	

a. 변인별 빈도의 합은 무응답자의 수에 따라 다르며, %는 해당지역내 유효빈도 백분율임.

b. 한국과 연변의 대응하는 수입 범주는 박혜원·박민정(2005)에 근거함.

동과의 관계, 그리고 연령, 교육수준, 월 평균 수입정도를 조사하는 문항이 포함되었다.

② 양육행동적 특성: 양육행동

부모별거 아동이 지각하는 대표양육자의 양육행동을 측정하기 위하여 Schaefer의 어머니 양육행동 모형을 토대로 박영애(1995)가 개발한 양육행동 척도를 사용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이 척도의 하위차원 중 온정·수용 양육행동과 거부·제재 양육행동을 측정하는 각 10개, 8개의 총 18개 문항을 추출하여 사용하였다. 응답자인 아동은 자신에 대한 대표양육자의 평소 행동을 근거로 하여 4점 척도에 답하였다. 하위차원별 총점의 범위는 10~40점, 8~32점이었고, 높은 점수를 얻을수록 각 특성이 높음을 의미하였다.

③ 양육심리적 특성: 양육효능감, 양육스트레스

부모별거 아동을 양육하는 대표양육자의 양육효능감을 측정하기 위해 최형성과 정옥분(2001)이 개발한 어머니의 양육효능감 척도를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전반적인 양육능력, 건강하게 양육하는 능력, 의사소통 능력, 학습지도 능력, 훈육능력 등 총 5개 차원의 37개 문항을 포함하고 있으나, 본 연구에서는 요인별 일부 문항을 제외한 22개 문항을 사용하였다. 대표양육자가 5점 평정척도에 반응하였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양육효능감이 낮다는 것을 의미하였다.

대표양육자의 양육스트레스는 조가원(2002)의 양육스트레스 척도의 일부 문항으로 측정되었다. 이 도구는 초등학교에서부터 20대까지의 자녀를 둔 편모의 양육스트레스를 측정하기 위해 개발된 것으로, 아동의 발달과 적응 문제, 자신의 정신적 스트레스와 과중한 역할부담,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 사회적 낙인에 관한 총 16문항으로 구성되었다. 대표 양육자가 5점 척도에 반응하였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양육 스트레스의 수준이 높다는 것을 의미하였다.

3) 사회적 적응력 측정도구

(1) 정서지능의 측정

아동의 정서지능을 측정하기 위해 유아 정서지능 평정 척도(김경희, 1998)의 일부 19개 문항을 추출,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유아가 또래나 교사와의 관계 속에서 보이는 자신과 타인의 정서상태에 대한 지각과 이 지각을 표현하는 방식, 나아가 감정을 조절하고, 생산적 활동에 정서를 이용할 수 있는 능력을 측정하는 도구이지만, 문항의 내용 분석을 통해 학령기 아동의 정서지능도 측정 가능한 것으로 판단되었다. 평정자로서 교사는 각 문항이 제시하는 정서지능 관련 내용이 아동의 행동과 일치되는 정도에 따라 5점 척도에 평정하였다.

(2) 문제행동의 측정

부모별거 아동의 문제행동을 진단하기 위해서 신경증적, 반사회적 및 혼합형 문제행동 등을 측정하는 Rutter(1967)의 교사용 아동행동 목록표(Children's Behavior Questionnaire; CBQ)를 사용하였다. 교사가 응답한 22개의 문항에 대해 1점~5점을 주어 총점의 범위는 22점~110점이다.

(3) 학교적응의 측정

아동의 학교적응은 옥경희 등(2001)이 초등학생과 중학교 1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학업과 사회성 발달의 측정을 위해 사용했던 도구로써 측정되었다. 이는 학교적응행동 전반, 또래관계 및 교사와의 관계를 측정하는 각 7개, 7개, 4개 등

총 18개 문항으로 구성되었다. 응답자는 교사였고 문항 반응 양식은 Likert 식 5점 척도였다.

본 연구에서 사용된 도구들의 문항 수와 문항신뢰도계수를 측정 변인별로 제시하면 <표 3>과 같다.

3. 연구 절차

본 연구에서 사용된 도구들은 국내 선행연구를 통해 그 타당성과 신뢰도가 인정된 것이었으나 일부 도구의 경우 응답자의 심리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문항 수를 축소하였고, 연변 지역의 조선족 아동에 대한 타당성의 검토가 필요하였다. 이에 축소된 문항들로 구성된 도구들의 내용타당도를 본 연구의 연구자들이 사전 검토한 후 연변 지역의 교육학 전공 협력교수 1인으로부터 조선족 아동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의 내용타당성을 검토 받아 최종 문항의 표현과 문항 수 등을 결정하였다. 표집의 크기는 비비율적으로 한국과 연변의 아동 수를 약 1대2의 비율로 하여 2개 학년에서 표집된 총 265명이었다.

본조사는 2005년 6월 1일~20일까지 실시되었다. 이 시기는 연변 지역의 경우 해당 학년도의 2학기 말이며, 한국은 새 학년도가 시작된 지 3개월이 경과된 시기로서 교사가 아동의 행동을 관찰, 이해할 만한 시간이 경과된 시기로 판단되었다. 학교에서 아동은 자신이 지각한 탄력성과 대표양육자의 양육행동을 측정하는 척도에 응답하였다. 대표양육자에게는 양육실태조사 질문지와 양육스트레스 및 양육효능감 척도를 가정으로 보내 응답 후 담임교사에게 제출하도록 하였다. 담임교사는 조사대상 아동의 정서지능, 문제행동 및 학교적응을 평가하는 척도에 반응하였다.

<표 3> 탄력성·양육요인 및 사회정서적 적응력 측정도구의 문항 수와 문항신뢰도 계수

주요 측정 변인	하위요인	하위 특성	하위변인	하위차원	문항 수	문항신뢰도 계수	비고	
탄력성					17	.78		
양육요인	별거경험 요인		별거시기		2		양육실태조사 질문지	
			별거기간 ^a 별거원인					
	대표양육자 요인	개인적 특성		아동과의 관계 연 령		4		양육실태조사 질문지
				교육수준 수입정도				
		양육행동적 특성		양육행동	온정·수용 거부·제재	10	.81	
				양육효능감		8	.83	
양육심리적 특성		양육스트레스		22	.96			
				16	.93			
사회정서적 적응력			정서지능		19	.93		
			문제행동		22	.92		
			학교적응		18	.90		

4. 자료의 처리와 분석

자료의 분석에 앞서 한국과 연변 지역별로 아동의 성에 따른 탄력성의 차이가 없음을 확인하고 이후 탄력성의 분석에서는 남, 여 아동의 자료를 합하여 분석하였으며, 연구문제1을 제외한 모든 분석은 지역별로 분리 분석하였다. 또 지역별 표본 크기, 변인의 하위범주나 차원별 집단 크기가 같지 않았으므로 평균의 차이분석 결과는 동분산 가정의 충족 여부를 고려하여 해석되었다.

연구문제별 분석방법은 다음과 같았다. 첫째, 한국과 연변 지역 부모별거 아동의 탄력성 차이를 확인하기 위해 t-검증을 하였다. 둘째, 부모별거 아동의 탄력성과 양육요인간의 관계를 알기 위해, 별거경험 요인의 하위변인인 별거시기와 별거기간 변인 그리고 대표양육자의 개인적 특성에 해당하는 연령, 교육수준, 수입정도 변인, 양육행동적·양육심리적 특성에 해당하는 양육행동, 양육효능감, 양육스트레스와 같은 연속변인들과 탄력성간 각각 Pearson의 상관계수를 산출하였다. 유독변인인 별거경험 요인의 별거원인, 대표양육자의 개인적 특성에 해당하는 아동과의 관계 변인과 탄력성간의 관계를 알기 위해 각각 평균의 차이분석을 실시하였다. 셋째, 부모별거 아동의 탄력성과 사회정서적 적응력간의 관계 분석을 위해 먼저, 지역별로 탄력성 점수의 평균을 기준으로 탄력성의 상, 하 집단을 구분하고 그 집단간 사회정서적 적응력의 3개 하위변인인 정서지능, 문제행동, 학교적응 변인 점수 각각이 차이있는지를 t-검증 하였다.

III. 연구결과

1. 한국과 연변 지역에 따른 부모별거 아동의 탄력성 차이

한국과 연변 지역에 따라 부모별거 아동의 탄력성은 차이가 있는지를 알기 위해 t-검정한 결과는 <표 4>에 제시되어

있다. 한국의 부모별거 아동의 탄력성 점수는 연변 지역의 부모별거 아동의 탄력성 점수보다 유의하게 낮은 것으로 밝혀졌다.

2. 부모별거 아동의 탄력성과 양육요인간의 관계

한국과 연변 지역별 탄력성과 양육요인간의 관계는 양육요인에 해당하는 변인들의 성격에 따라 상관관계 분석과 평균의 차이분석으로 파악되었다. 변인별 평균과 표준편차, 그리고 변인의 성격에 따라 산출된 Pearson의 적률상관계수 또는 F값은 다음 <표 5>에 제시되어 있다.

<표 5>에서 보듯이 한국과 연변 지역 모두에서 양육요인의 하위요인 중 별거경험 요인에 속하는 별거시기, 별거기간 하위변인 점수와 아동의 탄력성 점수간의 상관계수는 유의하지 않았고, 별거원인에 따른 탄력성 점수의 차이 역시 유의하지 않았다. 나아가 연구대상 아동이 5, 6학년생으로 연령차가 크지 않고 별거기간 또한 대다수가 6~7년에 해당된다는 점을 고려하여 아동의 성별을 통제하여 추가 분석을 하였다. 그 결과, 성변인을 통제변인으로 한 자아탄력성과 별거시기, 자아탄력성과 별거기간간의 편상관계수가 모두 유의하지 않았으며, 성변인을 통제변인으로 하고 별거원인에 따른 자아탄력성을 변량분석한 결과의 F값 역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결과들을 종합할 때 부모별거 아동의 탄력성은 별거경험 요인과 관계가 없다고 볼 수 있었다.

대표양육자 요인의 하위변인 중 아동과의 관계 변인에 따른 탄력성 점수의 차이는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고 대표양육자의 연령, 교육수준, 수입정도와 같은 개인적 특성과 탄력성 점수간의 상관계수들 역시 두 지역 모두에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표양육자의 개인적 특성은 아동의 탄력성과 관계가 없다고 밝혀졌다.

한국과 연변 지역의 아동 모두 대표양육자의 양육행동 변인의 두 하위차원들과 탄력성간의 유의한 관계를 보여

<표 4> 한국과 연변 지역에 따른 부모별거 아동의 탄력성 점수 차이검증 결과

지 역	평 균	표준편차	t
한국(n=160)a	44.95	6.61	-7.89***
연변(n=81)	51.88	6.08	

***p<.001

a.분석변인에 결측치가 있는 경우 해당아동은 분석에서 제외됨.

2) M±1SD 기준을 적용하여 집단을 구분하려 하였으나, 연변지역 아동 81명의 경우 26명만이 유효사례(상집단15명, 하집단 11명)로 분석대상에 포함됨으로써 표본의 크기가 너무 작아 통계적 문제점이 야기될 수 있다고 판단되어 평균을 기준으로 집단 구분을 하였다.

<표 5> 지역별 아동의 탄력성 점수와 양육요인의 하위변인간의 관계 분석 결과

하위요인	하위변인	하위범주 또는 하위차원	한국(n=184)a			연변(n=81)				
			M	SD	r 또는 F	M	SD	r 또는 F		
별거경험 요인	별거시기		7.64	2.98	r=.04	7.75	3.38	r=.05		
		별거기간	55.42	34.95	r=-.04	66.86	38.78	r=.00		
	별거원인	한쪽 또는 양쪽부모 사망	45.82	6.22	F=.40	53.50	6.61	F=1.05		
		부모 이혼 또는 불화	44.34	7.07		53.00	6.81			
		경제적 이유 또는 맞벌이 기타	44.64 44.60	6.28 5.56		50.64 52.95	6.09 5.21			
대표양육자 요인	개인적 특성	아동과의 관계	45.02	6.49	F=.92	52.88	6.56	F=1.33		
		연령	45.03	10.35	r=-.01	47.54	12.78	r=-.14		
	양육행동 특성	양육행동	편 부모	45.75	6.64		50.65	4.95		
			조부모·나이든 형제 친척	41.20	5.31		51.55	6.30		
		양육심리 특성	양육 효능감	이웃·부모친구·복지시설·기타	42.00	2.65		44.00	0.00	
				온정·수용 거부·제재	30.25 13.94	6.26 5.12	r=.29*** r=-.22**	32.07 12.93	4.72 5.30	r=.37*** r=-.31**
	양육스트레스	양육 스트레스	전반적인 양육능력	18.72	5.88	r=-.17*	13.14	4.17	r=-.03	
			건강 양육능력	6.77	2.64	r=-.19*	4.84	2.08	r=-.08	
			의사소통능력	10.89	3.76	r=-.17*	8.41	2.94	r=-.13	
			학습지도능력	12.19	4.28	r=-.20*	7.60	3.12	r=-.04	
			훈육능력	6.06	2.42	r=-.14+	3.94	1.62	r=-.10	
			양육효능감 전체	54.76	16.36	r=-.19*	37.93	10.71	r=-.06	
			발달·적응문제	12.65	4.97	r=-.04	12.52	4.88	r=-.09	
			자신의 정신적 스트레스와 과도한 역할분담	12.85	4.63	r=-.11	10.48	4.09	r=-.04	
			경제적 부담	5.23	2.21	r=-.17*	3.88	1.84	r=-.07	
			사회적 낙인	6.84	2.94	r=-.24**	6.90	3.16	r=-.12	
	양육스트레스 전체	37.77	12.63	r=-.14*	33.78	11.16	r=-.10			

*p<.05, **P<.01, ***p<.001

a.분석변인에 결측치가 있는 경우 해당 사례는 제외되었으므로 통계분석별 분석 사례수는 동일하지 않음.

주었다. 구체적으로, 탄력성 점수는 온정·수용적 양육행동 점수간에 정적 상관관계를, 그리고 거부·제재적 양육행동 점수간에 부적 상관관계를 보여주었다. 이에 두 지역에서 공통적으로 대표양육자가 온정·수용적 양육행동을 할수록, 거부·제재적 양육행동을 하지 않을수록 양육되는 아동의 탄력성은 높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표 5>와 같이, 대표양육자의 양육심리적 특성으로서의 양육효능감과 양육스트레스 변인은 한국 경우에만 아동의 탄력성과 유의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양육효능감의 5개 하위차원 중 훈육능력 차원을 제외한 4개 하위차원들과 양육효능감의 총점은 아동의 탄력성과 유의한 부적 상관관계를 보였다. 이는 양육효능감이 높을수록 탄력성이 높다는 것을 의미하였다. 양육스트레스 변인의 하위 4개 차원 중 경제적 부담, 사회적 낙인 차원들은 아동의 탄력성과 유의한 부적 상관관계를, 양육스트레스 전체와 탄력성은 1% 유의도 수준에서 부적 상관관계를 보임으로써 양육스트레스가 높을수록 탄력성은 낮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3. 부모별거 아동의 탄력성과 사회정서적 적응력간의 관계

탄력성 점수 평균을 기준으로 연구대상 아동들을 탄력성의 상·하 집단으로 구분하고, 두 집단간 사회정서적 적응력의 하위변인 점수가 차이 있는지를 분석하였다. 지역별·사회정서적 적응력의 하위변인별 탄력성 점수의 t-검증 결과는 <표 6>과 같다.

부모별거 아동의 탄력성과 정서지능의 관계 분석 결과, 먼저 한국의 경우, <표 6>에 제시된 바와 같이 자기정서의 이용, 자기정서의 인식과 표현의 두 하위차원과 정서지능 전체의 점수 각각은 탄력성의 상·하 집단간에 유의하게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즉 탄력성이 평균보다 높은 집단은 낮은 집단에 비해 자기정서의 이용, 자기정서의 인식 및 표현, 전체 정서지능의 각 수준이 높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연변 지역의 경우, 자기정서의 이용, 타인 정서의 인식 및 배려, 감정의 조절 및 충동억제의 세 하위차원과 정서지능 전체의 각 점수가 탄력성의 상·하 집단 간에 유의하게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즉 탄력성의 상 집단 아동의 세 하위차원과 정서지능 전체 수준 각각은 탄력성의

<표 6> 지역별·사회정서적 적응력의 하위변인별 탄력성

하위변인	하위차원	탄력성 집단 ^a	한 국			연 변		
			M	SD	t	M	SD	t
정서지능	자기정서의 이용	하	11.74	4.60	-2.93**	14.89	4.05	-2.89**
		상	13.68	3.61		17.30	3.43	
	타인정서 인식 및 배려	하	16.76	4.09	-1.52	19.24	3.96	-3.24**
		상	17.70	3.63		21.81	3.08	
	자기정서의 인식 및 표현	하	16.43	4.35	-2.18*	20.00	2.98	-.61
		상	17.83	3.64		20.40	2.86	
감정의 조절 및 충동억제	하	18.24	4.49	-1.60	18.08	5.22	-2.50*	
	상	19.33	4.12		20.74	4.38		
	정서지능의 전체	하	63.17	13.97	-2.63**	72.21	12.89	-2.96**
		상	68.53	11.39		80.26	11.58	
문제행동	문제행동 전체	하	33.53	11.48	4.33***	30.05	8.89	3.30**
		상	26.89	6.98		24.60	5.28	
학교적응	교사와의 관계	하	13.50	3.75	-1.67 [†]	16.29	3.28	-.31
		상	14.44	3.33		16.51	3.21	
	또래와의 관계	하	22.96	5.56	-3.99***	28.55	4.30	-2.14*
		상	25.99	3.73		30.56	4.14	
	학교적응 전반	하	24.20	5.33	-3.73***	26.55	5.22	-2.99*
		상	27.18	4.72		29.56	3.81	
	학교적응 전체	하	60.66	12.84	-3.76***	71.39	10.62	-2.38*
		상	67.61	10.15		76.63	9.15	

[†]p<.10, *p<.05, **p<.01, ***p<.001

a. 분석변인에 결측치가 있는 경우 해당 사례는 제외되었으므로 통계분석별 분석 사례수는 동일하지 않음

하 집단 아동의 그것보다 높았다. 따라서 한국과 연변 지역 모두 탄력성이 높은 아동의 정서지능은 탄력성이 낮은 아동의 정서지능보다 높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사회정서적 적응력의 부적 측면인 문제행동의 점수는 탄력성의 상·하 집단간에 유의하게 다르다는 결과가 한국과 연변 지역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났다. 즉 탄력성이 높은 집단의 아동들은 낮은 집단의 아동들보다 문제행동의 수준이 낮았다.

<표 6>에서 보듯이, 한국과 연변 지역 모두에서 학교적응 변인의 또래와의 관계, 학교적응 전반의 하위차원들과 학교적응 전체는 탄력성 수준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탄력성이 높은 집단 아동들의 학교적응 수준이 높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상과 같은 탄력성의 상·하 집단간 사회정서적 적응력의 세 가지 하위변인 각각의 차이가 유의하여 탄력성이 높은 아동의 사회정서적 적응력이 높다는 결과를 종합하면, 부모별거 아동의 탄력성과 사회정서적 적응력간의 관계는 유의하다고 볼 수 있었다.

IV. 논의 및 제언

본 연구는 한국과 연변조선족 부모별거 아동의 탄력성 발달 수준을 비교하고, 탄력성과 양육요인 및 사회정서적 적응

력과 관계를 확인하는데 목적을 두고 행해졌다. 연구결과에 따른 논의를 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한국과 연변 지역간 부모별거 아동의 탄력성은 차이가 있어 한국 아동의 탄력성 수준이 유의하게 낮은 것으로 밝혀졌다. 한국과 연변 지역간 부모별거 아동의 탄력성 발달을 직접 비교한 선행연구는 없다. 그러나 조복희와 이주연(2005, 2006)은 조선족 부모별거 아동만을 대상으로 한 연구들에서 부모별거 현상이 중국 조선족 아동들에게는 더 이상 특수한 경험이 아닐 수 있고, 조선족 가족이 급속히 핵가족화 되고 있으나 한국 사회에 비해 아직 대가족의 가족관계 특성이 더 강하게 남아있다는 가족 특성상 친척이나 조부모 등에 의한 대리양육이 가족분리에 의한 부정적인 영향을 적게 미쳤을 것으로 보인다. 이에 조선족 부모별거 아동의 전반적인 적응 양상이 긍정적으로 나타난 결과는 연변 지역의 사회문화적 특성 때문이라고 해석할 바 있다. 본 연구의 결과 역시 같은 맥락에서 수용될 수 있는 것이었다.

둘째, 부모별거 아동의 탄력성과 양육요인간의 관계를 한국과 연변 지역을 구분하여 살펴본 결과, 두 지역 모두 양육요인 중 별거경험 요인은 아동의 탄력성과 유의한 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결과는 본 연구에서 별거경험 요인에 포함된 하위변인들 즉 부모별거라는 부정적 경험에서 위험요인인 별거시기나 별거원인 변인, 그리고 보호요인인 별거기간 변인(김승경, 2004)이 탄력성의 발달에서 의미 있는 역할을 하지 않기 때문이라기 보다는 본 연구 대상 아

동들의 부모별거 기간에 의한 것으로 추측되었다. 왜냐하면, 한국과 연변 지역 아동 거의 모두의 별거기간이 6~7년으로 (<표 2> 참조) 부모별거 환경에 익숙해졌다고 볼 수 있고 (Hetherington, 1989), 이 정도의 별거기간은 실제 아동의 적응 수준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보고(천희영 등, 2006)된 바 있기 때문이다. 별거시기 변인의 영향은 별거기간과 조합하여 고려되어야 한다는 Emery(1988)의 제안도 이를 지지해 주었다.

한국과 연변 지역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난 또 다른 양육요인인 대표양육자 요인과 탄력성간의 관계는 다음과 같이 요약될 수 있었다. 대표양육자의 개인적 특성은 아동의 탄력성과 관계가 없는 반면 대표양육자의 양육행동적 특성은 아동의 탄력성 수준과 관계가 있다는 것이었다. 대표양육자가 아동과 어떤 관계의 사람인지, 연령·교육수준·수입정도가 어떠한지가 아동의 탄력성 수준과 유의한 관계가 없다는 결과는 탄력성 수준에 따른 사회경제적 지위가 차이 없다는 이용준과 박경자(2005)의 연구결과와 일관된 것이었으나 그들의 연구대상은 사회경제적 지위가 중·상류층에 속한 아동들이었다는 점에 주의할 필요가 있었다. 본 연구의 결과는 가정의 높은 사회경제적 지위가 탄력성 발달에서의 보호요인으로 작용한다는 다수의 주장들(Kirby & Fraser, 2000)과 함께 이혼가정 아동의 사회정서적 적응력 발달에 주양육자 또는 동거인이 누구인지와 평균수입 정도가 유의한 영향요인이라는 연구결과(천희영 등, 2006)와 일관되지 않는 것이었다. 이러한 결과는 김승경(2004)의 연구에서 대상 아동의 부모 이혼경과 기간이 2년 이내인 경우가 약 32%로 다수를 차지하여 본 연구의 대상 아동들에 비해 아직 부모별거에 따른 대표양육자의 인구학적 특성 변인들의 직접적인 영향력이 상대적으로 큰 시기이기 때문에, 그리고 후자의 연구에서는 사회정서적 적응력을 예측하는 과정에서 아동의 성과(또는) 학년 변인이 고려되었으나 본 연구에서는 탄력성에서의 성 차이만 확인했을 뿐 성 변인의 영향을 배제하지 않고 관계 분석을 했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로 추측할 수 있었다³⁾. 비록 부모별거 가족의 아동은 아니지만 초등학교 6학년 아동의 탄력성이 성에 따라 차이가 있으며(이용준·박경자, 2005), 여아의 탄력성이 남아보다 높아 조기발달에서는 여아가 유리하다(이완정, 2001)는 연구들은 성 변인을 고려한 추후 분석이 필요함을 시사해 주었다. 또 다른 가능한 해석은 탄력성과 양육행동적 및 심리적 특성과의 관계를 보여준 본 연구의 결과와 연관지어 보는 것이었다. 대표양육자의 개인적 특성이 그들의 부모역할수행의 과정에 관련되어 간접적으로 아

동에게 영향 미친다는 점(예; 옥경희 등, 2006; 이은경·박성연, 2004; Masten et al., 1999), 개인적 특성의 하위변인들과 양육행동·양육효능감·양육스트레스 변인들과의 관계(예; 김미숙·문혁준, 2005) 등을 고려할 때 탄력성 발달과의 간접적인 관련성을 부인할 수는 없다고 생각되었다. 이에 다양한 변인들간의 상호 관계 분석을 통해 대표양육자의 개인적 특성과 탄력성간의 관계 재확인이 요구되었다.

대표양육자가 양육행동적 특성으로 온정·수용적 양육행동을 보일수록 아동의 탄력성 수준은 높지만 거부·제재적 양육행동을 보일수록 아동의 탄력성 수준은 낮은 것으로 나타난 결과는 학령기 아동의 탄력성 발달에 있어 양육자의 안정적·일관적·지지적인 양육행동의 중요성을 언급했던 Masten 등(1999)과 김승경(2004)의 연구, 유아의 탄력성 수준과 민주적 양육행동의 긍정적인 관계를 보여주었던 Horning과 Gordon Rouse(2002), 김선희(2005)의 연구결과를 확인시켜 주는 것이었다.

대표양육자가 지각하는 양육효능감은 1% 유의도 수준에서 유의한 관계를 보인 혼용능력 차원을 포함한 5개 하위차원 모두 그리고 양육효능감 전체의 점수가 각각 아동의 탄력성 점수와 부적 상관을 보임으로써 양육효능감이 높을수록 탄력성이 높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또 양육스트레스는 4개의 하위차원 중 경제적 부담과 사회적 낙인 차원이 탄력성과 부적 상관이 있으며 양육스트레스 전체는 1% 수준에서 탄력성과 부적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 양육스트레스가 낮을수록 탄력성이 높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 같은 아동의 탄력성과 양육자의 양육효능감 및 양육스트레스와의 관계는 선행연구들(김선희, 2005; 김승경, 2004)의 주장과 일관된 것이어서 양육행동을 매개로 아동의 탄력성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추측할 수 있었다.

그러나 양육행동과 양육효능감, 양육스트레스간의 밀접한 관계(예; 김선희, 2005)에도 불구하고, 양육행동과 달리 양육심리적 특성의 두 하위변인들과 탄력성간의 유의한 관계는 연변 지역 아동에게서는 발견되지 않는다는 점이 주목되었다. 대표양육자로 역할하는 연변조선족의 조부모는 한국 조부모보다 양육효능감은 더 높게, 양육스트레스는 더 낮게 지각한다는 옥경희 등(2006)의 결과와 유사하게, 본 연구의 결과에서도 연변 지역 대표양육자의 양육효능감이 상대적으로 높고, 일부 양육스트레스 하위차원을 제외한 나머지 차원들과 양육스트레스 전체에서 스트레스가 상대적으로 낮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표 5> 참조). 이 같은 결과들은 부모별거 가족 중 조부모-손자녀 가족뿐 아니라 대리양육이 이루어지는 상황에서 대리양육자가 지각하는 경제자원의 부족, 양육 및 학업지도를 위한 부모역할수행에 대한 심리적 부담이 한국의 경우 더 크다(옥경희 등, 2006; 천희영 등, 2006)는 것을 반영해 주었다. 그리고 일면, 한국과 연변 지

3) 추가 분석을 통해 성변인을 통제변인으로 자아탄력성과 수입 정도간의 편상관계수를 산출한 결과, 한국 아동에게서 $r=.20$ ($p<.05$)의 유의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역과는 관계없이 양육행동 특성 즉 양육적인 대리부모와의 밀접한 관계 변인은 탄력성이 높은 아동과 낮은 아동을 일관되게 변별하는 변인의 하나(Masten & Coatsworth, 1995)임을 재확인해 주었다.

셋째, 부모별거 아동의 탄력성과 사회정서적 적응력간의 관계는 사회정서적 적응력의 3가지 하위변인별로 분석되었다. 먼저 정서지능은 한국의 경우 4개 하위차원 중 2개 하위차원과 정서지능 전체가, 연변의 경우 3개 하위차원과 정서지능 전체가 탄력성의 상·하 집단간에 유의한 차이가 있어 탄력성이 높은 집단의 아동이 낮은 집단의 아동보다 정서지능이 높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한국과 연변 지역에서 공통적으로 탄력성이 높은 아동에 비해 낮은 아동에게서 사회정서적 적응력의 부적 측면인 문제행동이, 학교적응 변인의 또래와의 관계 및 학교적응 전반 그리고 학교적응 전체에서의 적응 수준이 높게 나타났다. 본 연구의 결과는 위기의 경험 여부와 관계없이 아동의 적응 수준을 결정하는데 탄력성이 중요하다는 점에서 수용될 수 있는 결과였고, 비록 연구대상의 특성에 있어 본 연구와 차이가 있으나 탄력성이 높은 아동이 높은 정서지능 수준을 반영하는 반응들, 낮은 수준의 문제행동, 높은 학교적응 특성을 보인다는 선행연구들(이완정, 2002; 현은민·박혜영, 2005)을 지지하는 것이었다. 또한 탄력성과 학교적응간의 관계 이해에 있어 이혼가정 아동의 탄력성이 교사지지에 의해 간접적으로, 친구지지에 의해 직·간접적으로 긍정적인 영향을 받는다는 김승경(2004)의 보고가 참고될 수 있었다. 아울러 탄력성과 사회정서적 적응력간의 관계를 발견하려는 본 연구의 목적에 비추어 살펴본 이와 같은 관련성을 통해 부모별거라는 위기 상황에서도 아동의 탄력성이 적응의 기저로써 사회적 지능과 동일한 특성을 가지며(Kosmitizki & John, 1993, 현은민·박혜영, 2005에서 재인용), 아동의 적응 수준 회복, 나아가 사회정서적 적응력의 향상을 가져오는데 있어 중요 역할을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상에서의 연구문제별 논의를 종합할 때 시사되는 바는 한국과 연변 지역에 따른 탄력성과 연구 변인들간의 관계 양상은 차이가 있다기 보다는 유사하다는 것이었다. 탄력성의 지역 차이에 대한 일부 해석(조복희·이주연, 2005, 2006), 탄력성과 대표양육자의 양육심리적 특성간의 관계에 대한 해석(옥경희 등, 2006; 천희영 등, 2006)은 지역별 사회문화적 특성과 관련될 수 있었으나, 대부분의 양육요인과 탄력성간의 관계 그리고 탄력성과 사회정서적 적응력의 관계 양상은 유사했으며, 또한 대부분이 선행연구 결과와 일치된 것이었다. 이와 같은 결과는 조선족 부모별거 아동에 관한 선행연구들에서 밝혀진 바(윤갑정, 2007; 천희영 등, 2006)와 같이 조선족 부모별거 아동의 이해에서 기본적으로 사회문화적 특수성이 고려되어야 하지만 아동의 개인적 특성 또는 미시

적 양육환경 특성이 그들의 적응에 더 영향을 준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된다는 것을 재확인시켜 주었다. 그리고 한국과 연변조선족 사회 각각의 사회와 문화 및 가족의 변화 특성에도 불구하고 부모별거 아동의 긍정적인 발달과 적응을 돕기 위한 방안의 모색을 위해서는 이러한 점이 보다 충분히 고려되어야 한다는 것을 시사해 주었다.

본 연구는 한국과 연변조선족 거주 지역 부모별거 아동의 표집이 임의표집으로 이루어졌고, 초등학교 고학년만을 포함하고 있어 연구결과를 일반화 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과 연변 지역에서 부모별거라는 스트레스 상황에서 적응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탄력성에 초점을 두고 연구하였으며, 각 지역의 부모별거 아동의 탄력성과 사회정서적 적응력의 향상을 돕는데 필요한 기초 정보를 제공하였는데 본 연구의 의의를 들 수 있었다.

끝으로 추후 연구를 위한 제언을 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의 대상이었던 부모별거 아동은 별거기간이 길어 별거 경험이 없는 아동과 적응에 차이가 없을 것으로 예측할 수 있으므로 별거 경험이 없는 일반 아동과 탄력성 및 사회정서적 적응력의 발달을 비교, 확인하는 연구가 요청된다. 둘째, 탄력성이 스트레스 상황에서의 비취약성 이상의 의미를 가지며(Garmezy, 1993; Kirby & Fraser, 2000), '개인의 성향(trait)'보다는 '역동적인 과정(dynamic process)'을 의미(이완정, 2002)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추후 탄력성과 관련 변인들간의 관계 분석 연구는 상호작용적 관점, 역동적 관점에서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참 고 문 헌】

- 김경희(1998). **교사용 유아 정서지능 평정척도 개발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김미숙·문혁준(2005). 유아기 자녀를 둔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 및 양육효능감과 양육행동간의 관계. **대한가정학회지**, 43(8), 25-35.
- 김선희(2005). 유아의 탄력성에 대한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 양육효능감 및 양육행동의 영향. **유아교육연구**, 25(4), 191-209.
- 김승경(2004). **이혼가정 아동의 탄력성에 대한 위험-보호요인들 간의 경로분석**. 서울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리철민·리홍길(2004). **單親無親學生教育指南**. 연변: 연변 교육출판사.
- 박영애(1995). **부모의 양육행동 및 형제관계와 아동의 자존감과의 관계**. 고려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박혜원·박민정(2005). 연변 지역의 조선족과 한족 및 한국 아동의 기질 비교. **대한가정학회지**, 43(3), 221-231.
- 신재선·정문자(2002). 초등학교의 또래 괴롭힘 유형과 스트

- 레스 대처행동에 관한 연구. **아동학회지**, **21(1)**, 19-33.
- 오승환(2001). 결손가족 청소년의 적응 결정요인에 관한 비교 연구 : 부모 이혼·별거가족과 사망가족을 중심으로. **사회복지연구**, **17(1)**, 99-125.
- 오은순(1997). **이혼가정 아동의 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생태학적 변인들의 구조 분석**.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 옥경희(2005). 조부모-손자녀 가족 아동의 학교생활적응. **한국 가정관리학회지**, **23(4)**, 55-65.
- 옥경희·김미해·천희영(2001). 저소득층 아동의 학업, 정서 및 사회성 발달: 부모보호와 자기보호 비교. **아동학회지**, **22(2)**, 91-111.
- 옥경희·정계숙·천희영·황혜정·최성학(2006). 한국과 연변 조선족 조부모-손자녀가족 조부모의 양육스트레스, 양육 효능감 및 양육행동 연구. **한국가정관리학회지**, **24(4)**, 25-36.
- 우수경·최기영(2002). 유아의 정서능력과 관련변인간의 구조 분석. **유아교육연구**, **2(2)**, 29-55.
- 윤갑정(2007). **중국연변 조선족 유아의 가족생활 연구**. 부산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윤현희·홍창희·이진환(2001). 부모보고형 자아탄력성 척도의 개발. **심리과학**, **10(1)**, 33-53.
- 이선경·이재연(1998). 아동의 문제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위기 요인과 보호요인 의 이론적 과정 모델. **아동학회지**, **19(2)**, 49-64.
- 이완정(2002). 발달과정에서 위험요소에 노출된 유아의 심리적 건강성과 보호요인 분석. **아동학회지**, **23(1)**, 1-16.
- 이용준·박경자(2005). 탄력적인 아동의 보호요인 연구. **아동학회지**, **26(1)**, 329-345.
- 이은경·박성연(2004). 양친이 안 계신 가정 아동의 정서·행동문제에 대한 연구. **대한가정학회지**, **42(12)**, 191-204.
- 이혜승(2003). 부모의 양육효능감과 부모역할수행과의 관계 : 재미동포 한인 1 세대 부모에 관한 연구. **아동학회지**, **24(3)**, 57-71.
- 정현숙(1993). 부모의 이혼에 따른 자녀들의 적응. **아동학회지**, **14(1)**, 59-75.
- 조가원(2002). **편모의 양육스트레스와 사회적 지지가 정신 건강에 미치는 영향**. 전북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조복희·이주연(2005). 부모와 별거하는 중국 조선족 아동의 생활환경과 적응 문제. **아동학회지**, **26(4)**, 231-245.
- 조복희·이주연(2006). 부모와 별거하는 중국 조선족 아동의 양육자에 대한 애착과 적응문제. **아동학회지**, **27(4)**, 247-263.
- 조선일보(2007). 중국 조선족가정 '코리아 드림'의 어두운 그림자. 2007. 11. 3.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07/11/03/2007110300104.html.
- 천희영·정계숙·옥경희·황혜정·최성학(2006). 부모별거 초등 학생의 별거경험 및 양육요인에 따른 사회·정서적 적응력 연구. **아동학회지**, **27(2)**, 101-126.
- 최형성·정옥분(2001). 어머니의 양육효능감 척도의 개발. **아동학회지**, **22(3)**, 1-15.
- 통계청(2007). 2006년 이혼 통계결과. <http://www.mso.go.kr>.
- 하영희(2003). 개인변인과 환경변인이 아동의 문제행동에 미치는 영향. **아동학회지**, **24(4)**, 29-40.
- 한미현 외 11인(2007). **아동복지**. 서울 : 창지사.
- 현은민·박혜영(2005). 시설보호아동·청소년의 자아탄력성과 사회적 적응에 관한 연구. **한국가정관리학회지**, **23(1)**, 19-29.
- Abidin, R. F(1992). The determinants of parenting behavior. *The Journal of Clinical Child*, **21(4)**, 401-412.
- Altshuler, J. L., & Ruble, D. N.(1989). Developmental change in children's awareness of strategies for coping with uncontrollable stress. *Child Development*, **60(6)**, 1337-1349.
- Amato, P. R., & Keith, B. (1991). Parental divorce and the well-being of children : A meta-analysis. *Journal of Marriage and Family*, **61(2)**, 557-573.
- Block, J. H., & Block, J.(1980). The role of ego-control and ego-resiliency in organization of behavior. In W. A. Collins(Ed). *Minnesota symposium on child psychology*(Vol. 13, pp.39-101). Hillsdale, NJ: Erlbaum.
- Block, J., & Kermen, A. M.(1996). IQ and ego-resiliency : Conceptual and empirical connection and separatenes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70**, 349-361
- Demo, D. H., & Cox, M. J.(2000). Families with young children : A review of research in the 1990s. *Journal of Marriage and Family*, **62(4)**, 876-895.
- Dubowitz, H., & Sawyer, R.(1994). School behavior of children in kinship care. *Child abuse and Neglect*, **18(11)**, 899-911.
- Emery, R. E.(1988). *Marriage, divorce, and children's adjustment*. CA: Sage.
- Emery, R. E., & Forehand, R.(1996). Parental divorce and children's well-being : A focus on resilience. In R. J. Haggerty, L. R. Sherrod, N. Garnezy, & M. Rutter(Eds), *stress, risk and adolescents : processes, mechanism, and Interventions*. Cambridge University Press.

- Garnezy, N.(1985). Stress resistant children: The search for protective factors. In J. E. Stevenson(Ed.), *Recent research in developmental psychopathology* (pp.213-233). NY: Pergamon Press.
- Garnezy, N.(1993). Children in poverty : Resilience despite risk. *Psychiatry*, 56, 127-136.
- Hetherington, E. M.(1989). Divorce : A child's perspective. *American Psychologist*, 34(10), 851-858.
- Horning, L. E., & Gordon Rouse, K. A.(2002). Resilience in preschoolers and toddlers from low-income families. *Early Childhood Education Journal*, 29(3), 155-159.
- Katz, L. G., & McClellan, D. E.(1997). *Fostering children's social competence : The teacher's role*. The NAEYC Research into Practice Series, Vol. 8. Washington, D.C. : NAEYC.
- Kirby, L. D., & Fraser, M. W.(2000). Risk and resilience in childhood. In M. W. Fraser(Ed.), *Risk and resilience in childhood: An ecological perspective*(pp.10-33). Washington, DC: National Association of Social Workers.
- Klein, S. F., & Beller, A. H.(1988). Education of children from single-parent families : Differences by exposure, gender and race. *Demography*, 55, 221-224.
- Masten, A. S., Best, K. M., & Garnezy, N.(1990). Resilience and development: contributions from the study of children who overcome adversity. *Developmental Psychopathology*, 2, 425-444.
- Masten, A. S., & Coatsworth, D. J.(1995). Competence, resilience, and psychopathology. In D. Cicchetti & D. J. Cohen(Eds.), *Developmental psychology: Risk, disorder, and adaptation*(pp.715-752). NY: Wiley.
- Masten, A. S., Hubbard, J. J., Gest, S. D., Tellegen, A., Garnezy, N., & Ramirez, M.(1999). Competence in the context of adversity: Pathways to resilience and maladaptation from childhood to late adolescence. *Development and Psychopathology*, 11(1), 143-169.
- Rutter, M.(1967). A children's behavior questionnaire for completion by teachers. *Journal of Child Psychology and Psychiatry*, 8, 1-11.

접수일 : 2008년 01월 14일

심사완료일 : 2008년 03월 17일